



고창남초, '그림책을 처방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고창남초등학교(교장 이용섭)는 지난 10월 2일과 16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그림책을 처방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수업은 학교 도서관과 협업하여 그림책을 매개로 감정을 이해하고 친구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림책 '문밖에 사자가 있다'와 '노스애프터'를 함께 읽으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책은 두려움과 용기, 관계맺기의 어려움을 다룬 이야기로,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맞닿아 있다. 교사는 책을 읽은 뒤 "우리 마음속에도 문밖의 사지처럼 다가가기 어려운 순간이 있을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아이들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 학생들은 주인공의 마음을 함께 이야기하며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꼴지를 위하여" 동요를 함께 부르며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웃음과 공감을 나누며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또한 버려지는 그림책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 활동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오래되어 쓰이지 않던 그림책의 일부를 오려 붙이며 자신만의 팝업북을 완성하였다. 버려지는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는 이번 활동은 단순한 만들기 활동을 넘어, 환경을 생각하는 ESG가치 교육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낡은 책으로 새 책을 만들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며 즐거운 소감을 전했다. 수업을 함께 사서 교사 또한 "아이들이 그림책 속 이야기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발견하고, 버려진 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고창남초 이용섭 교장은 "그림책은 아이들이 마음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도록 돕는 훌륭한 매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이영면, 밀착 돌봄 행정 추진

남원시 아영면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부터 청년층, 소상공인까지 전 세대를 직접 찾아가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영면은 올해 9월까지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총 959세대를 방문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거환경 개선 지원, 건의 사항 청취 및 민간 자원 연계 등 행정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특히, 단순 민원 청취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건강 상태를 세밀히 살피며,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소규모 수선이나 청소가 필요한 가구에는 재능기부 봉사단과 협력해 즉각적인 현장 개선을 추진하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

이금연 아영면장은 "면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한 복지와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여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공연 펼쳐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무주청소년수련관, 후원: 무주군)는 무주남대전휴먼시아아파트와 연계하여 10월 16일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열고 다채로운 오케스트라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나눔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레이더스 마치(Raiders March)', '신세계 교향곡(Symphony No.9 From the New World)', '맘마미아(Mamma Mia)' 등 9곡의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풍성한 음악적 감동을 전했다. 무주청소년수련관 김주형 관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단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무대에서 연주하며 소속감과 음악적 성취감을 높이는 한편, 음악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모두를 빛나게 할 평등을 켜다’

제14회 젠더문화축제 성료... 차별·편견 깨는 퍼포먼스·가족소통 강연 등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치명자산산지 평화의전당(전주시 완산구 바랍써는길 120) 일원에서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14회 젠더문화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젠더문화축제는 '평등ON, 모두가 빛나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도내 여성·가족·대학·기업·종교 관련 28개 기관·단체가 공동 주관하여 진행됐다. 행사에는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 건국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배우자 목영숙 여사 등을 비롯한 여성기관·단체장, 14개 시군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서는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번 퍼포먼스는 성평등을 가로막는 차별과 편견을 깨부수고,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이혼속려캠프 호랑이 상담사'로 잘 알려진 이호선 교수가 초청되어 '가족소통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 강연은 평등사회를 만들



어가는 데 가족의 역할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으로, 도민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또한 축제 현장에는 28개 공동추진기관이 마련한 홍보·체험부스와 지역 소상공인 플리마켓, 인생네컷 포토존 등 총 41개 참여 부스가 운영되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통해 '젠더'의 정의를 확산하며 성평등 가치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 적상면, 제33회 면민의 날 개최... 주민·출향인 소통의 장

'별빛 담은 단풍, 단풍 담은 적상'을 주제로한 제33회 무주군 적상면민의 날 행사가 지난 18일 적상면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적상면이 주최하고 적상면발전협의회(회장 이성열)가 주관했으며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윤정훈 도의원, 재경향우회(무주군민회, 무주읍민회, 무풍면민회, 설천면민회, 적상면민회) 회원들과 적상면민 등 1천 5백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풍물단, 실버체조, 색소폰 연주, 순가락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화합행사(태권도 시범 등), 면민 노래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종 전시와 체험, 나눔 행사 등도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황정자 씨가 부모공경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타의 모범이 돼 적상면민의 장 '호행장', 이선옥 씨는 향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장'의 주인공이 됐다. '공익장'은 남다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한 안해순 씨에게로 돌아갔다.



임종철 씨와 고귀식 씨, 박영근 씨, 이선영 씨는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다. 이외 광동환 씨와 한상희 씨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의회 의장상을 수상했으며 김문찬 씨와 문지운 씨, 신경미 씨는 적상면발전협의회에서 주는 감사장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대병원,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북대학교병원이 장애인 체육선수의 안정적 고용과 경기 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와 손을 맞잡았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17일 병원 본관 3층 가운데홀에서 세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경기활동과 직업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고용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을 비롯해 장애인고용공단 박중석 이사장, 전북자치도장애인체육회 조형철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장애인 체육선수의 안정적 고용 기반 조성 △체계적인 복무관리 및 직무지원 체계 구축 △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문화 정착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내 우수한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운동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진안군, 고위직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진안군은 지난 16일 군청 강당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건강하고 존중·배려가 중심이 되는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폭력예방에 대해 흥미진진 강사가 "리더의 성인지 감수성과 책임 있는 조직관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되는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촬영 등 다양한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소개하며, 관리자들의 높은 성인지 감수성과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전춘성 군수는 "조직 구성원이 폭력 예방 인식을 내면화하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대 김윤수 학생, 3년 연속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김윤수 학생이 3년 연속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김 씨는 2023년부터 경찰청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5월 열린 온라인 불법 무기 유통정보 집중신고 캠페인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해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지난해와 재작년에도 같은 캠페인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려 감사장을 받아, 올해로 3년 연속 수상했다. 누리캅스는 '누리꾼의 누리'와 'cop(경찰)'의 합성어로, 2007년 경찰청 수사국이 발족한 민경 협력체제다.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며, 각종 사이버 정책에도 협력하는 무보수 명예직 사이버 경찰이다. 경찰청은 매년 특정 주제를 정해 집중신고 캠페인을 운영하고, 우수 활동자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한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보건소, 감염병 예방 체험부스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난 16일, 질병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 2025 남원국제도론제전 with 로봇 행사장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체험형 부스를 운영했다. 이 부스는 남원시가 감염병 예방 행태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실천을 제고를 위한 질병관리청의 2025년 지역 축제에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행태 홍보부스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내용은 △뷰박스 체험(손 세균 확인) △퍼즐 맞추기(감염병 예방 행태 인식 개선) △OX퀴즈와 다트 던지기(감염병 바로 알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 체험에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진드기 매개 감염병, 결핵, C형 간염,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모기 퇴치, 예방접종 등 실생활에 유용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전달해 교육적 효과를 높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참여형 감염병 예방 홍보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축항동장, 소통 행정 강화 나서

남원시 임점축 축항동장이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주민들과 최일선에서 소통하는 통장들의 각 세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소통행정을 추진하며 환영받고 있다. 이번 활동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고 특히 취약계층 통장 가구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으로, 단순한 점검을 넘어 통장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애로사항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로 자리 잡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진행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복지관 이용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우울증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우울증의 개념과 원인 △주요 증상 이해 △예방 및 관리 방법 △일상 속 스트레스 대처법 △전문기관 연계 안내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20회 순창장류축제, '순창 메주거리' 조성

제20회 순창장류축제를 맞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에 전통 메주를 전시한 '순창 메주거리'를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된 메주거리에는 총 33개의 거치대에 전통 방식으로 정성껏 엮은 메주 약 4,500개가 걸려 있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짚으로 정성스레 엮은 메주들은 제20회 순창장류축제 행사장의 정겨움과 운치를 한층 더해주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